

27. 지혜서

지혜서는 점차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해져 유대 사상과 유일신 사상을 잊어가던 이들에게 구약의 전통과 유일신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 작성된 다양한 주제의 지혜문학 문헌입니다. 지혜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내용상으로 유다교에서 ‘현인’ 자체로 여겨졌던 솔로몬 임금이 많은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책을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은 BC 50-30년경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집트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레니즘 문화가 압도하는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살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집필했습니다. 저자는 그리스 문화와 사상에 비교하여 유다교 관습과 사상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헬레니즘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적 인생관에 맞서 유다교의 전통적 믿음과 교리를 수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지혜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의인들의 운명과 그들을 박해하는 악인들의 운명이 대조를 이루며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말합니다(1-5장). 둘째 부분은 임금과 권력자들에게 하는 권고와 지혜를 청하는 기도로 이루어진 지혜찬가입니다(6-10장). 셋째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반성으로서 이집트 탈출에서 구원의 열쇠가 되는 사건이 지혜의 공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11-19장).

지혜서의 가르침은 크게 의인들의 불사불멸과 지혜의 의인화 두 가지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못된 행실로써 이미 ‘불사’를 포기한 것이며 의인들은 비록 현세에서 보상을 못 받더라도 죽어 하느님 곁에서 평화를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데, 이 가르침은 장례미사에서 1독서로 자주 봉독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거룩한 영, 온 세상에 충만하여 만물을 총괄하는 주님의 영광 동일시되는데,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일치하게 만드는 힘으로서 요한 복음에서 사람이 되신 말씀과 통하는 개념입니다.